

研究論文

# 지문의 종결형태를 통해 본 고전소설의 서술방식 -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

이 지 영\*

I. 서론	V. 결론
II. 서술지문에 나타난 어미의 종결형	<참고문헌>
III. ‘-다’, ‘-니라’, ‘-더라’와 서술자의 위치	<국문요약>
IV. 종결어미의 빈도와 서술자의 목소리	

## I. 서론

20세기 초 우리의 소설작가들은 종결형태의 처리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이들이 종결형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소설의 서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김동인은 춘원 이광수의 글에 나타나는 ‘-더라’를 문어체의 흔적으로 비판하였다.<sup>1)</sup> 소설이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구어체로 서술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소설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더라’는 구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어체라는 것이다.

이전 소설에 대한 김동인의 이러한 비판은 이후 현대소설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권영민은 ‘-더라’식의 표현이 ‘설화성’을 드러내는 종결어미라고 하여, 문어체적 표현이라고 한 김동인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지만, 극복되어야 할 구습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는 ‘-더라’식의 표현이 이야기를

\* 서울대학교 전임대우강사, 고전고설 전공(yiji419@hanmail.net).

1) 김동인, 『한국근대소설고』, 『동인전집(8)』(홍자출판사, 1964), 598쪽.

전달하는 고대소설의 설화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전지적인 서술과 관련된다 고 하였다.<sup>2)</sup> 권보드래 또한 전대소설(前代小說)의 ‘-더라’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로서 서술자의 초월적인 위치를 드러낸다고 논하였다.<sup>3)</sup>

그런데 고전소설에 대한 김동인의 언급은 실제 작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김동인은 과거의 소설에 대해서는 문헌이 없으니 참고할 바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은 승려들의 손으로 된 몇 가지의 역사담과 기담 외에 춘향전 등이 있으며 모두 그 이야기의 주지를 전할 뿐 정본은 구할 수가 없다”<sup>4)</sup>고 하였다. 고전소설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고전소설은 야담계 소설이나 <춘향전>에 그치고 있다. 김동인 이후의 연구자들이 언급한 ‘고대소설’ 혹은 ‘전대소설’도 막연한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때문에 어미의 종결형에 대한 논의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고전소설의 이 분야에 대한 고찰도 미미하였다. 소설의 종결형에 관해서는 <춘향전>을 대상으로 연구가 있었으며,<sup>5)</sup> 이밖에 ‘-더라’에 대한 국어학적인 고찰을 하면서 언급된 정도이다.<sup>6)</sup> 그런 탓에 고전소설의 종결형에 ‘-이라’, ‘-더라’ 등이 있다는 막연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종결형에 대한 국어학계의 논의를 참조할 때,<sup>7)</sup> 종결형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의 종결형에 대해 이처럼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은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을 대립시켜 오늘날의 소설을 일본과 서구에서 이식된 장르로만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종결형이 서술 방식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고전소설에 나타난 종결형의 실상을 좀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7세기에 한글로 창작된 <사씨남정기>를 대상으로 하여 어미

2) 권영민, 「개화기 소설의 문체연구」, 서울대 석사논문(1975), 36~37쪽.

3)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소명출판, 2000), 239~255쪽.

4) 김동인, 앞의 논문(1964), 584쪽.

5) 박갑수,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문체」, 『고전문학의 문체와 표현』(집문당, 2005).

6) 이지영(李知英), 「선어말어미 ‘더’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이흥식, 「한국어 어미 ‘-더라’와 소설의 발달」, 『텍스트언어학』, 14(2003).

7) 이지영(李知英)은 ‘-나라’와 ‘-더라’의 의미차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이지영(李知英), 위의 논문), 장윤희는 ‘-다’의 의미차이를 ‘-나라’ 및 ‘-더라’와 대비하여 논의한 바 있다.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1998).

의 종결형과 서술방식의 관련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씨남정기>는 상층 사대부 남성문인이 창작하였지만, 이후 사대부 남성 뿐 아니라 사대부 여성 또한 즐겨 읽었던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고전소설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이도 그리 길지 않아 종결형의 전모를 살피기 유리하다. 현재 많은 이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원본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소장본 <남정기>(귀 K4-6789)를 택하기로 한다.<sup>8)</sup>

## II. 서술지문에 나타난 어미의 종결형

소설텍스트는 누구의 목소리로 서술되는가에 따라 대화와 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지문은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부분이고 대화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서술하는 부분이다. 인용부호로 인해 대화와 지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오늘날의 소설과 달리, 고전소설에서는 대화와 지문을 나누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 작품을 읽다보면 대화와 지문의 구분이 불분명한 대목은 오히려 드물다. 서술자의 말과 등장인물의 말이 “골오디”나 “닐으디” 등 인용투어로 인해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대화부분에서는 대체로 등장인물의 신분이나 관계에 맞게 설정된 등장인물의 목소리로 가장되기 때문에 서술자의 목소리와는 구별된다. 이 글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바로 서술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서술된 지문이다. 지문의 종결형에서는 서술자의 서술태도나 위치, 시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8) 이금희는 조동일 소장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했으며[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반도출판사, 1991)], 부세(Daniel Bouchez)는 장서각 소장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문체가 훌륭한 선본(善本)이라고 하였다[부세, 「원문 비평 방법론에 관한 소고(小考)」, 『동방학지』, 95(1997)]. 이에 대해 이내중은 몇몇 주요 이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동일 소장본은 <백빈주증봉기>와 김춘택 한역본의 교합본하여 재역한 이본이기 때문에 국문 원본과는 거리가 있으며, 현재 전하는 이본 중에서는 장서각 소장본이 원본 가장 가까우면서 문체가 매끄러운 이본이라고 하였다[이내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19(2003)]. 필자가 확인한 바로도 조동일 소장본은 교합본인데다가 문장도 거칠고 조야한 반면, 장서각 소장본은 문체 면에서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지영(李智瑛), 「<사씨남정기>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 분석: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7(2004).

권영민은 20세기 초 창작된 신소설 <은세계>와 <추월색>의 서술지문에 나타난 어미의 종결형을 고찰한 바 있다.<sup>9)</sup> 두 작품에서 조사한 어미의 종결형은 ‘-이라’, ‘-더라’, ‘-러라’, ‘-흐다’, ‘-헛다’, ‘-인고’, ‘-리오’, ‘-던가’의 여덟 가지이며 이 중에서 ‘-이라’, ‘-흐다’, ‘-더라’의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세계>에서는 ‘-이라’가 137번 사용되었으며, ‘-흐다’가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114번), ‘-더라’는 두 종결형보다 훨씬 적은 빈도수를 보였다(56번). <추월색>에서는 ‘-더라’가 44번으로, 22번의 ‘-흐다’보다는 더 많이 나타났지만, 역시 58번 사용된 ‘-이라’보다는 빈도가 낮았다. 두 작품 모두에서 ‘-니라’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헛다’는 <은세계>에서는 19번, <추월색>에서는 3번이 사용되었다.

또한 박갑수는 문장체 소설에 가까운 동양문고본 <춘향전>과 판소리에 가까운 <열녀춘향수절가>의 종결어미를 평서형과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 청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sup>10)</sup> 이 중에서 평서형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로는 ‘-다’, ‘-라’, ‘-네’, ‘-듯’, ‘-을’, ‘-제’이다. 특히 평서형 종결어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형과 ‘-라’형에 대해서는 이들과 결합되는 형태소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종결형은 ‘-라’에 계사 ‘이’가 결합된 형태인 ‘-이라’로 동양문고본에서 95회, <열녀춘향수절가>에서 35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다’에 ‘-니’이 결합된 ‘-니다’가 많이 나타나는데, 동양문고본에서는 62회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22회 나왔다. ‘-다’는 동양문고본의 경우 51회,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13회 출현하며, ‘-엇다’형은 동양문고본에서 16회 나타나고, <열녀춘향수절가>는 ‘-이엇다’형이 15회 나타난다고 하였다. ‘-더라’는 동양문고본에서 9회, <열녀춘향수절가>에서 5회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종결형은 3회 미만의 빈도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은세계>, <추월색> 등의 신소설과 <춘향전>의 두 이본 모두 ‘-이라’가 각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같으며 ‘-흐다’나 ‘-헛다’도 두 부류의 텍스트에서 모두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유사하다. 다만, 신소설에서는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인 ‘-더라’의 비중이 <춘향전>에서는 <열녀춘향수절가>나 동양문고본 모두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전형적

9) 권영민, 앞의 논문(1975), 37쪽.

10) 박갑수, 앞의 논문(2005), 246쪽.

인 문장체 소설인 <사씨남정기>의 서술지문에서는 어미의 종결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화를 제외한 서술지문에서 발견된 종결형은 모두 일곱 가지이다.<sup>11)</sup>

- ① 평서형 :
  - ‘-라’형 : -더라(/-러라), -니라, -(홀)너라, -이라
  - ‘-다’형 : -다
- ② 의문형 : ‘-리오’

이를 권별로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종결형태		권별	권(88면)	권2(96면)	권3(88면)	합계
평서형	‘-라’형	-더라(/러라)	47	45	41	133
		-니라	11	4	17	32
		-(홀)러라	1	2	4	7
		-이라	2	2	4	8
	‘-다’형	-다	4	6	9	19
의문형		‘-리오’	3	1	2	6

위의 표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문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종결형은 ‘-더라’(133번)이며 ‘-니라’(32번)가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 선어말 어미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기본형 ‘-다’도 18번이나 나타난다. 이 밖에 ‘리오’ 등 서술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종결어미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빈도수는 평서형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런데 <사씨남정기>에서는 신소설이나 <춘향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춘향전>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더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또 이들 텍스트에서는 거의 사용되

11) 박갑수는 ‘-지라’를 종결형으로 보았는데(위의 논문), “이러구러 삼년이 지나더니 즐기미 극하면 슬프미 나눈지라 쇼시 홀연 득병하야..”(권1)에서처럼 맥락에 따라 종결의 의미가 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하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결보다는 연결어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 않았던 ‘-니라’가 <사씨남정기>에서는 32회 사용되었다. 또한 <사씨남정기>에서는 신소설 및 <춘향전>에서처럼 종결어미 ‘-다’가 나타나고 있다. ‘-다’는 소설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소설 이외의 서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결어미이다.<sup>12)</sup>

그동안 ‘-이라’와 ‘-더라’는 그동안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종결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들 종결형태가 사용된 서술은 서술자의 초월적인 위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여겨졌다. 권영민은 ‘-이라’와 ‘-더라’ 등이 고대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종결형태라고 하면서 “-이라’, ‘더라’식의 문장에서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 내면적인 심리변화, 배경, 사건의 전개 등이 전지적인 작가의 위치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이는 설명적 서술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라’가 사용된 문장은 “특정한 시간관념을 표시하지 못하며 전지적인 작가와 이야기 내용의 존재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3)</sup> 고전소설의 전지적인 시점이 이들 종결형에서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소리계 소설과 문장체 소설인 <사씨남정기>의 예를 두고 보았을 때, ‘-이라’와 ‘-더라’가 동시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라’와 ‘-더라’가 모두 자주 사용된 신소설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로 보건대, 일반화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전지적 시점=초월적 지위=‘-더라’의 관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씨남정기>의 서술지문에 나타난 어미의 종결형을 고찰함으로써 고전소설의 서술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어미의 종결형을 통한 서술방식의 고찰은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문체로 인식되었던 ‘-더라’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고영근은 ‘-하다’를 설명법 어미로 보았으며 ‘-이라’와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고영근,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탑출판사, 1998), 15쪽. 그러나 ‘-하다’와 ‘-이라’는 서술자의 태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13) 권영민, 앞의 논문(1975), 37쪽.

14) 권보드래도 “-이라’, ‘-도다’, ‘-더라’라 하는 초월적인 어투”는 바로 서술자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존재로서 발언한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권보드래, 앞의 책(2000), 236-237쪽.

### III. '-다', '-니라', '-더라'와 서술자의 위치

<사씨남정기>의 지문에 나타난 어미의 종결형 중에서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것은 '-더라', '-니라', '-다'이다.<sup>15)</sup> 언뜻 보기에는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이들 세 종결형태 간에는 의미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더라'가 사용된 문장에 '-하다'나 '-니라'를 넣어도 별다른 어색함을 느낄 수 없다.

교네 총혜하여 한님의 뜻을 맞치며 진심하여 사부인을 섬기니 한님이 깃거

더라(권1, 20면)

→ 교네 총혜하여 한님의 뜻을 맞치며 진심하여 사부인을 섬기니 한님이 깃거

하니라

→ 교네 총혜하여 한님의 뜻을 맞치며 진심하여 사부인을 섬기니 한님이 깃거

하다

고영근도 '-하니라'와 '-하다'에 대해서 <두시언해>의 용례를 근거로 두 어형이 수의적으로 교체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지문에서 사용된 '-더라'는 '-하니라'나 '-하다'와 의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sup>16)</sup> 그리고 이들 세 종결어미는 현대어의 소설지문에서 사용되는 '-었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7)</sup>

그러나 위의 세 문장의 뉘앙스가 완전히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세 문장 간에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니라'와 '-다'와 '-더라'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장윤희는 15세기 국어에서 '-니라'와 '-다'는 구체적인 발화상황의 유무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다'는 역사서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절대문을 구성한다고 하였다.<sup>18)</sup> 그리고 최동주는 15세기 국어에서 '-더라'는 단지 과거의 상황을 의미하는 '-니라'나

15) <사씨남정기>의 종결형에는 이 밖에도 '-이라', '-홀니라' 등이 있으며, 이들의 의미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 '-더라'나 '-다'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16) 고영근, 앞의 책(1998), 15~16쪽

17) 위의 책, 94~95쪽.

18) 장윤희, 앞의 논문(1998), 109~129쪽, 절대문에 대해서는 임흥빈, 「국어의 '절대문(絶對文)'에 대하여」, 『진단학보』, 56(1983) 참조.

‘-다’와 미완료 : 완료의 대립을 이루면서 과거의 상황을 현재화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9)</sup> ‘-더라’와 ‘-니라’가 15세기 국어에서 구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지영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지영은 <삼강행실도>를 고찰한 결과 인물의 행적서술에서는 ‘-더라’가 많이 나타나고 인물에 대한 국가나 하늘의 보상 부분에서는 ‘-니라’ 사용되었는데, <석보상절>에서는 전반적으로 ‘-니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sup>20)</sup>

이러한 선행연구는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사씨남정기>에서도 이들 종결형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다. 권별로 각 종결형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는 권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권2와 권1에서는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니라’는 권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권2에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더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기는 하나, 권3에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1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권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문장의 어미에서 종결어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권3에서는 ‘-더라’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다’와 ‘-니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보다 면수가 적은 권2에서는 오히려 종결형의 빈도수가 전체적으로 낮았는데, ‘-더라’의 빈도수는 높게 나타나고 ‘-다’와 ‘-니라’는 빈도는 낮다. ‘-더라’가 많이 사용될수록 ‘-니라’나 ‘-다’의 사용이 적었으며 동시에 전체 종결어미의 횟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어미의 종결형태가 서사전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가 사용된 예부터 살펴보자.

사-①츠시 태학스 엄습이 당국혀 도정 권세를 희롱하니 희 숨으로 더브러 불합혀야 상소하고 벼슬을 가라지라 혼디 턴지 허허스 특별이 태즈쇼스를 허 이사 씨 어진 사름 공경허는 뜻을 뵈시다(권1, 1면).

사-②…묘희 전후 소득으로 슈월암을 중수허야 그 집 간슈를 더하고 쏘 군산 절의 구충탑을 세우고 일흠을 부인탑이라 허다(권3, 31면).

19) 최동주, 「국어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1995), 99~102쪽.

20) 이지영(李知英), 앞의 논문(2004), 10쪽.



①에서는 국가의 일을 서술하고 있고, ②에서는 사실에 대한 기록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공식적인 기록’, 즉 역사서술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장윤희는 종결어미 ‘-다’가 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 요소가 가장 적게 반영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거나 역사적 사실인지 불분명할 때에도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표현할 때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sup>21)</sup> <사씨남정기>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는 역사적 배경을 차용하였지만, 여기에서 서술되는 내용은 대부분이 허구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이를 마치 역사적 사실인 듯 서술하기 위해서 ‘-다’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역사를 가장하기 위해서 서술자는 사건이 일단락되는 대목에서는 의식적으로 종결어미 ‘-다’를 선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③ 이날 빈쥐 서로 즐기다가 날이 저물면 각각 도라가다. 쇼계 구가의 드리오므로브터(권1, 15면).

사-④ 이날 추관이 직당의서 즈고 이튼날 부인이 장춧 씨날시 모희와 모든 녀승이 산의 느려 비벌히고 각각 보둥흐물 날크르며 눈물을 썩리고 가다(권 3,28면).

③과 ④는 공식적인 기록의 의미이나 역사서술의 이미지는 약하다. 다만 두 문장은 ‘완료’의 의미가 강하다. ③은 사정옥과 유연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유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사정옥의 생활이 서술된다. ④는 사정옥이 군산의 암자를 떠나는 장면이다. 이로써 집을 떠나 떠돌면서 겪게 되었던 사씨의 고난은 일단락된다. 위의 인용문은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서술자는 의도적으로 ‘-다’를 사용하여 서술내용이 실재하였던 일의 기록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결어미 ‘-다’를 사용하게 되면 서술자는 독자 및 서술대상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다’가 말하는 사람의 주관의 반영이 가장 적은 종결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씨남정기>에서 ‘-니라’가 사용된 문장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21) 장윤희, 앞의 논문(1998), 122~124쪽.

사-⑤ 다른 시비는 익미혼 일이라 참아 무복지 못하고 설미는 직초흐면 죽기를 면치 못홀지라 죽기로써 직고치 아니하니 맞춤니 종적이 업는지라, 두부인이 쏘흔 흘일 업서 도라가니라(권1, 41면).

사-⑥ 드디어 동청을 계림티슈를 하니 이 동청이 교녀로 더브러 크게 깃거 퉁 일하야 계림의 부임하니라(권3, 5면).

⑤는 사씨의 옥환이 없어진 일로 유연수가 모든 시비를 국문하지만, 결국 진상을 얻지 못해 사씨를 억울함을 풀어주려던 두부인이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매를 맞은 시비들이 거짓으로 옥환을 훔쳤다고 말할 수도 없고 범인인 설매조차 처벌이 두려워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⑥은 동청이 엄승에게 뇌물을 바쳐 계림태수로 부임하는 장면인데, 서술자는 ‘크게 깃거’라고 하면서 동청의 마음을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니라’를 사용할 경우는 ‘-다’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도 보다 가깝게 느껴진다. 구체적인 발화상황을 전제하지 않는 ‘-다’에 비해서 ‘-니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의 경우는 지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인물간의 대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sup>22)</sup> 그만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결형이다. 반면 ‘-니라’는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니라’가 사용된 문장에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더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어학계의 선행연구에서는 ‘-더라’가 서술어의 주체가 일인칭인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였다.<sup>23)</sup> 이른바 인칭제약이라고 하는 이같은 현상은 15세기 국어에서는 나타나지만, 18세기 말에 이르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sup>24)</sup>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서각 소장본 <사씨남정기>는 창작연대가 17세기 말이지만, 필사후기는 이보다 후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인칭제약을 어긴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대화문의 연결어미에서는 “작죄흔 사름이 스스로 죽지 못하야 이 짜히 표박하야 간난이

22) 위의 논문, 114~115쪽.

23) 고영근, 앞의 책(1998), 95~96쪽.

24) 최동주, 앞의 논문(1995), 157~162쪽.

지늬웁더니…(권3, 14면)”, “동청의 보닌 도적을 만나 노복을 다 일코 다시 스라날 길이 업더니…(권3, 15면)” 등에서처럼 일인칭 화자의 서술에서 선어말 어미 ‘-더-’가 사용되었다. 이는 ‘-더라’의 인칭제약에 비해 ‘-더니’의 인칭제약이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종결형에서 인칭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사씨남정기>에서 ‘-더라’의 의미는 현대국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씨남정기>의 서술지문에 나타난 종결형 ‘-더라’가 주로 대화에서 사용되는 현대국어의 ‘-더라’와 기능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식은 소설 지문의 어미가 ‘-더라’에서 ‘-는다’를 거쳐 ‘-있다’로 교체된 것은 ‘-더라’의 의미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6)</sup> 20세기 초에 소설에서 종결형 ‘-더라’가 사라지게 된 데에는 일본소설의 영향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고전소설에서 ‘-더라’가 보수적으로 사용되었을 지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사씨남정기>에 나타나고 있는 ‘-더라’의 의미는 어떠한지 실례를 통해 고찰하기로 한다. 작품에서 ‘-더라’가 사용된 문장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⑦지현이 곁오티 “노선싱 분부틀 맞당이 진심허려니와 문일 저집의 가서 어이 뼈 발언허리잇가” 쇼식 왈 “다란 말 말고 나의 원허는 바는 오직 선급스의 청직을 스모히고 쏘 쇼져의 부덕을 흠양흠이라 흥즉 저집의셔 반드시 허치 아닐 이 업스리라” 지현 왈 “숨가 말습디로 허리이다” 허더라(권1, 12면).

사-⑧한님이 늑네를 갖초아 쇼져를 마즈니 위의의 부성흠과 네절의 아름다오를 관광허는 직 칭찬 아니 리 업더라(권1, 13면).

사-⑨쏘 청초도성이 늑며 비단 옷 님은 시녀 십여인이 첩보 술위를 응위허야 오니 주취 도요히고 향늑 코의 뵈이니 위의 부성흠미 극하더라(권3, 5면).

⑦은 유소사가 매과를 통해 사씨 집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신성현의 지현을 찾아가 부탁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등장인물간의 문답이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종결형 ‘-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서술자는 등장인물 간의 문답이

25) 이에 대해서는 최동주,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언어』, 27(한국언어학회, 2002), 529쪽 참조.

26) 이홍식, 앞의 논문(2003), 180~186쪽.

끝나서야 ‘-허더라’라는 어미를 붙이고 있으며, 인물간의 문답 중간에 서술자는 ‘지현이 같오대’처럼 누가 말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 외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때문에 서술자는 이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처럼 ‘-더라’의 사용에서는 보고 들은 일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서술자의 역할이 감지된다. ⑧에서도 ‘-더라’와 ‘전달자’로서 서술자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장면은 유연수와 사정옥의 혼례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관광하는 자 칭찬 아닐 이 없더라’라는 구절로 인하여 마치 혼례에 참석한 구경꾼이 본 것을 전달하는 듯하다. 그리고 ⑨는 유배에서 풀려난 유연수가 도중에 계림태수로 부임하는 동청과 교씨의 행차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서술자는 유연수의 시점을 통해서 행차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위 예문에서는 이들이 동청과 교씨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서술자는 ‘유연수’의 눈을 빌어 본 장면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역시 종결형은 ‘-더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씨남정기>에서 ‘-더라’는 관찰자이자 전달자로서 서술자의 위치를 암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흔히 ‘-더라’를 사용한 문장의 서술시점에 대해서 서술자의 위치가 초월적이라고 보았으며, ‘-더라’체의 문장이 당연히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더라’체를 사용하였을 때 서술자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듯 관찰자의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사씨남정기>가 관찰자적인 서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적어도 ‘-더라’체가 바로 서술자의 초월적인 위치에서 비롯되는 전지적 시점보다는 오히려 관찰자적 위치에서 서술되는 제한적 서사와 관련이 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동일한 작품에서 서술자의 전지적인 목소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사-⑩ 니른바 군산은 동정호 팔백니 가온디 잇는지라 스방이 다 물이요 괴특  
 흥 바회와 피히 돌넛고 경기 절승하여 네벗터 인적이 니르지 아닌 곳이라(권  
 2, 37면).

사-⑪ 교네 본디 영오흔 겨집이라 종인을 블너 무른디(권3, 9면).

사-⑫ 지방관이 나와 마즈 공장을 드리니 이는 사경안이라 사랑이 그 턱슈를  
 야지 못허더니(권3, 25면).

위는 모두 서술자의 목소리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인데, 종결형으로 ‘-이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⑩에서 서술자는 작품의 서사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군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⑪에서도 서술자는 교씨에 대해서 전지적 설명자로서 서술하고 있다. ⑫에서 시랑 유연수는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태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서술자는 그가 곧 사정옥의 남동생 사경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씨남정기>에서는 서술자가 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나타나는 어미는 이처럼 거의가 ‘-이라’이다. 그런데 작품 전체에 걸쳐 ‘-이라’는 불과 여덟 번만 나타나고 있다.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서사를 설명하는 대목보다는 관찰자적 시점에서 장면을 보여주고 대목이 더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더라’의 의미를 ‘주관화(Subjectification)’와 ‘거리감(Remoteness)’으로 본 신현숙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신현숙은 ‘-더라’가 화자가 관찰한 사실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관화라고 보았으며, 그 의미를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정보적 거리, 관계적 거리 등의 ‘거리감’으로 설명하였다.<sup>27)</sup> 곧 ‘-더라’는 화자가 보거나 들은 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며, 동시에 말하는 상황에서 이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혹은 잘 모르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용된 ‘-더라’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서술자는 서사상황을 옆에서 바라본 사람으로서 혹은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장면을 서술하면서 ‘-더라’를 사용하였다. 이를 ‘주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서술자는 서술대상에 대해서 전지적 시점을 취하지 않았으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대해 전지적 시점을 취할 때는 ‘-이라’나 ‘-니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유지하는 ‘-더라’의 경우와 대비된다.

이와 같이 <사씨남정기>의 서술지문에 나타난 ‘-다’, ‘-니라’, ‘-더라’의 종결형은 서술대상에 대한 서술태도 면에서 상이한 점을 보인다. ‘-다’의 경우에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서술한 문장에서, ‘-니라’는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더라’는 관찰자나 전달자로서 서술할 때 사

27) 신현숙, 『A Subjectification Maker in Korean: -tela(-더라)』, 『언어』, 15(한국언어학회, 1990).

용되고 있었다.

이는 <사씨남정기> 이외의 서사텍스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을병연행록>은 서술자가 곧 체험자인 1인칭 텍스트이다. 여기에서도 <사씨남정기>처럼 어미에서 ‘-더라’와 ‘-니라’와 ‘-다’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더라’와 ‘-니라’가 사용된 몇몇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28)</sup>

- 을-① 십삼일 평양셔 니발흐야 이십일 의쥬 머무다
- 을-② 이십이일노브터 녹일의 니라히 의쥬 머무다
- 을-③ 하향이 십니의 쏘이니 이는 스형의 혼이 보지 못홀 거시라 흐더라
- 을-④ 식후의 흥둥 두어 슝을 더브러 월파루의 오르니 누 남편 성 우히 지엇는디라 크기 이십어간이오 체되 웅장흐며 단청이 영농흐더라
- 을-⑤ 먼 길히 밥을 잘 먹어야 폐단이 업술 거시오 반찬의 고기를 만히 먹으면 비위 수이 상홀 듯흐기 참 담은 국슈국을 마셔 어한을 홀 싹뵈시오 반찬은 소척흐야 먹으니 일노 인흐야 길히셔 병이 아니나고 반찬 어려운 줄을 모르고 왕넉흐니라
- 을-⑥ 아국이 그 은혜를 싱각흐야 스당을 세워 춘츄로 제스를 밧들게 흐니라

<을병연행록>은 그날그날의 일기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각 여정에 따라 ‘○’를 하여 소제목 붙이고 있다. 이 때 소제목의 종결어미는 모두 ‘-다’형으로, ①과 ②가 그 예이다. 소제목에서는 며칠간의 여정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가 사용된 문장에 나타난 이러한 서술방식은 <사씨남정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③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전달하면서 ‘-더라’로 문장을 맺고 있는 예이며, ④에서는 월파루를 구경하고 본 바를 서술하면서 ‘-더라’를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이처럼 ‘-더라’가 사용된 문장은 서술자인 홍대용이 보고 들은 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더라’가 나타나지 않고 ‘-니라’가 사용된다. ⑤에서는 홍대용이 멀고 먼 사행길을 무사히 왕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⑥에서는 명나라의 병부상서였던 석성의 사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서술이고 ⑥은

---

28) 김태준(편), 『을병연행록』(명시대 국문과 국학자료 간행위원회, 1983) 참조.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을병연행록>에서 ‘-더라’는 보고 들은 이야기를 관찰자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니라’의 경우에는 직접 체험한 바나 확실한 정보를 알릴 때에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씨남정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을병연행록>에서도 ‘-다’, ‘-더라’, ‘-니라’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종결형의 의미 차이는 오히려 <사씨남정기>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을병연행록>이 사행견문록이며 서술자와 체험자가 일치하는 일인칭 텍스트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구적 서사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조야첨재>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sup>29)</sup>

조-① 성절사 박이창(朴以昌)이[주:안신(安身)의 즈라] 스스로 목질너 죽다 하니 명하사 관곽과 미두를 주시다. 이창(以昌)이 도라와 신안관(新安館)의 니르터더니 야반의 좃던 칼흘 썩혀 스스로 목질너 비스지 밋쳐 거의 죽게 된 지라...하시고 전을 일위시고 관곽과 미두를 주시다.

조-② 녁능 천봉하을 썩의 비를 못고 쓰지 아니하고 국조 능침의 비를 세우지 아니미 현능으로브터 비로스니라.

조-③ 한명회(韓明澮)로 하여곰 심살 문서를 가지고 문 안의 안저 모든 지상을 불너 제일문을 드리오미 북중을 업시하고 제이문의 드리오미 일홈이 죽을 문서의 잇는 직면 무스로 하여곰 처서 죽이니 인(仁)과 극관(克寬)과 양(穰) 등이 다 죽으니라.

조-④ 상황이 슈강궁으로 가실시 어두운 밤의 불이 업고 종누로 나리실시 좌우 형낭이 다 우리 곳쳐 엇지 못하더라.[주:썩의 처부 윤훈(尹薰)이 동의금을 하여 날드려 니르더라.

조-⑤세좌(世祖) 스양하여 엇지 못하고 오히려 부복하시거늘 노산(魯山)이 명하여 붓드러 나가시게 하시니 세좌(世祖) 대군청의 니르시니 빅관이 시립하고 군식 시위하더라

<조야첨재>에서도 <을병연행록>처럼 표제어의 성격을 지니는 문장에서는 중

29) <조야첨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http://yoksa.aks.ac.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한다.

결어미로 ‘-다’를 사용하고 있다. ①의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자는 성절사 박이창의 죽음과 이에 대한 왕의 처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 문장에서는 박이창이 죽게 된 연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일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종결형태 ‘-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는 국조 능침에 비석을 세우지 않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③은 한명회가 생살 문서로 재상을 죽였다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의 신하에게 죽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와 ③은 모두 서술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으며, 이 점은 <을병연행록>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야첨재>에서는 ④나 ⑤와 같이 ‘-더라’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도 많은데, <용재총화> 등 다른 문헌에서 가져 온 내용이 많다. ⑤는 서술자가 옆에서 본 일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주를 통해서 자료의 출처를 『실록』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사관이 보고 들은 바를 서술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④의 출처는 『추강냉화』인데 서술자는 자신이 본 일처럼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점을 덧붙여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역사서술에 가까운 <조야첨재>에서도 종결형태의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서술방식은 <사씨남정기>나 <을병연행록>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다’는 표제어의 성격을 띠는 기사의 첫 문장에서 요약적으로 내용을 서술할 때에 사용하고, 공식적인 일을 서술할 때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니라’는 서술자가 확신하고 있는 정보나 사건에 대해서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할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라’는 보고 들은 일을 서술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야첨재>의 경우는 여러 문헌의 내용을 짜깁기한 텍스트이지만, 출전의 대부분이 한문자료로 서술자는 이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결어미의 선택은 <조야첨재> 서술자의 선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을병연행록>이나 <조야첨재>와 달리 <사씨남정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서술자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서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사씨남정기>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보고 들은 일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라’나 ‘-다’를 서술하는 것이 적합할 것처럼 보인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이순신이 배를 만들더라”가 영화나 TV를 통해서 이를 보고 이야기한 경우가 비문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sup>3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씨남정기>에서는 <을병연행록>이나 <조야첨재>에서 서술자가 보거나 들은 일을 서술할 때에 사용하는 ‘-더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씨남정기> 서술자의 서술특징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술자는 허구적인 서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을병연행록>이나 <조야첨재>보다는 ‘-다’의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다’의 실제 의미보다는 역사텍스트의 이미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즉 역사텍스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가져오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씨남정기>에서는 ‘-니라’의 사용빈도도 높지 않다. <을병연행록>에서는 ‘-니라’를 서술자 자신의 행위를 서술할 때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용되었으며, <조야첨재>에서도 ‘-니라’는 서술자가 설명적으로 서술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허구적 서사인 <사씨남정기>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전지적인 시점에서 서술할 때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다’의 추상적인 서술방식이나 ‘-니라’와 같은 설명적인 서술방식은 장면의 생생하게 서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실제로 상황을 목격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다시 말해서 <사씨남정기>에서 ‘-더라’는 장면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인 셈이다. 허구적 서사물인 <사씨남정기>에서 ‘-더라’가 ‘-니라’나 ‘-다’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서술자가 서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30) 최동주는 ‘-더-’가 경험을 의미한다고 한 정문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이를 본질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더-’가 경험과 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발화시와 인식시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최동주, 앞의 논문(1995), 220~221쪽.

31) 신현숙은 앞서 언급한 대로 ‘-더라’의 의미를 거리감(remoteness)으로 보면서 그 기능은 주관화(subjectification)라고 말한 바 있다. 말하는 사람이 직접 보거나 전해 듣거나 한 정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현숙, 앞의 논문(1990).

32) 이는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각국대도회(各國大都會)의 경상(景像)’을 그린 대목에서 종결어미 ‘-더더라’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병근은 이에 대해서 과거의 일이나 상태를 좀더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더더라’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병근, 「유길준의 어문사용과 『서유견문』, 『진단학보』, 89(2000), 324~325쪽.

#### IV. 종결어미의 빈도와 서술자의 목소리

고전소설의 문장은 대체로 오늘날의 문장에 비해서 길다. 이는 <사씨남정기>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272면인 <사씨남정기>에서 종결어미는 모두 합해서 204번 나온다. 평균 1.3면에 한 번씩 사용된 셈이다. 한 면의 글자 수는 대략 215자 내외로 띄어쓰기를 하여 원고지 분량으로 환산하면 1.5매 정도가 된다. 오늘날의 문장에 비하면 종결어미의 빈도가 낮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는 평균적으로 계산한 결과로, 작품에서는 종결어미의 사용이 고르지 않다. 다음의 두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⑬ 대명가정년간의 북경순턴부의 혼 지상이 이시니 성은 뉴요 명은 희니 성의빅 뉴기의 휘라. 희의 스티로부터 경스의 와 벼슬 햐야 인햐야 머므러 스라 순턴부 사름이 되니라. 뉴희 세종조의 네부상셔로 문장덕업이 일디 웃듬이라. 츠시 태학스 엄슌이 당국햐여 도정 권세를 희롱하니 희 슌으로 더브러 불합햐야 상소햐고 벼슬을 가라지라 혼디 턴지 허햐스 특별이 태즈쇼스를 햐이샤 뼈어진 사름 공경햐는 쫓을 뵈시다. 쇼스 벼슬이 츠기엿 벼슬이 아니라 도정 득실의 참예치 아니햐나 일시 스티뷔 다 쇼스의 덕힘을 추앙햐더라(권1, 1면).

사-⑭ 묘희 사가의 가 부인을 뵈온디 부인이 쫓흔 불법을 숭상햐는지라, 즉시 묘희를 보거늘 묘희 나아가 절햐고 한훤을 맞춘 후 부인이 곁오디

“오리 스부를 보지 못햐엿더니 아지 못게라 금일은 무슴 일이 이셔 왔느뇨”  
묘희 슬오디

“쇼승 잇습는 절이 퇴락햐옵기로 중창햐려 햐와 여기 업습기로 오리 문안을 못햐엿습더니 이제는 역스르 꺾습고 보시를 부인긔 청코져 햐여 특별이 와 뵈으분이다”

부인이 곁오디

“진실노 불스의 보틸 일이 이시면 닉 엿지 앓가울 거시 이시리오 마는 다만 집이 스벽 썩이니 스부의 청을 듯지 못홀 듯햐거니와 스부의 구햐는 바는 무어시뇨”

묘희 곁오디

“쇼승의 구햐는 바는 부인 덕의 허비햐올 빅 아니라 나의 원을 일운즉 엿지 금은 썩이리잇가”

부인이 곱오되

“시험하야 니르라”

묘희 슬오되

“쇼승이 암즈를 중슈하온 후의 혼 단월이 잇스와 관음화상을 보너오니 이는 당적 명화라 그림 싯히 명인의 찬하온 글이 업스오니 만일 쇼져 글을 엇스와 친히 써 주시면 산문에 큰 보비 될 거시오니 그 갑슬 의논컨디 비록 혼 슬위에 칠보를 시러 주어도 엇지 못할가 하느이다”

부인이 곱오되

“비록 낙간 네기 글 비화시나 엇지 이 글을 지으리오 시험하야 무르리라”

하고 즉시 쇼져를 부른디 쇼제 명을 좃츠 녹와 묘희로 더브러 서로 볼시 묘희 크게 놀나 가마니 헤오되 ‘인세에 엇지 이갓흔 사툼이 이시리오 받드시 관음이 현성하여 이의 왔도다’ 하고 곱오되

“사오년 전의 쇼져를 보앗습더니 쇼제 능히 기록하시느릿가”

쇼제 곱오되

“어이 니즈리오”

부인이 쇼제를 도라보아 곱오되

“ 이 스뵈 먼니 와 네 글시를 엇고져 하니 네 능히 지을쇼냐”

쇼제 웃고 곱오되

“일 업슨 산인이 문인의 글 엇기를 일습으니 구하는 즘와 응하는 지 다 유익함미 업습고 허물며 시부와 가스는 녀즈의 경계라 스부의 청을 듯지 못할가 하느이다”

묘희 곱오되

“그러치 아니하오니 이는 경기를 귀경하고 짓는 글이 아니라 쇼승이 관음보살 화상을 엇습고 늣흔 글노 그 역을 칭송할가 호미니 관세음 보살은 녀즈의 몸이라 받드시 녀즈의 괴특흔 글을 어더야 가히 그 덕을 칭송하리니 당금 녀즈 중 쇼져를 바리고 뉘 지으리오 바라컨디 쇼져는 보사님 안면을 보아 스양치 말으소서”

부인이 쏘 곱오되

“네 만일 지으면 이 쏘흔 보시라 엇지 헛도이 지음과 비하리오”

쇼제 덕왈

“시험하야 글제를 드리지이다”

묘희 즉시 종인을 불러 혼 축 그림을 가져와 중당의 거니 만경창과 줌에 혼 외로운 섬이 있는데 관음대식 흰 옷 입고 소장도 업시 혼 동즈를 안고 슈죽 가운데 안즈시니 필법이 정묘호야 정치 맞치 사름 갖더라(권1, 4~6면).

⑬은 <사씨남정기>의 서두 부분이다. 해당 분량은 원고지로 환산하였을 때 대략 1.4매 정도의 분량인데, 종결어미는 다섯 번이나 사용되었다. ⑭묘희가 사정옥에게서 관음찬을 받아오는 장면인데, 원고지 6.2매 정도의 긴 서술에서 종결어미가 한 번만 나타난다.

이처럼 문장이 긴 이유에 대해서 권영민은 “구체적인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이 길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sup>33)</sup> 그러나 위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면 문장이 긴 ⑭보다 문장이 짧은 ⑬의 서술이 보다 설명적이다. ⑬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작품 서두로 서술자는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⑬의 밑줄 부분에서는 주인공 유연수의 아버지인 유희가 엄승과 불합하여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나는 장면이 두 줄의 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⑭와는 대조적이다. ⑭에서는 등장인물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장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을 ⑬의 문장처럼 서술한다면 두 번째 줄 이후 대화장면을 ‘묘희가 사씨의 집에 가서 사씨에게 관음찬을 부탁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이 부분은 ⑬에서처럼 요약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소설의 서술방식을 보여주기과 말하기로 나누어 볼 때, ⑬는 말하기의 방식으로 ⑭는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⑬과 ⑭에서는 서술자가 드러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⑬에서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⑭에서 서술자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대사를 매개하는 존재로 뒤에 물러서 있고, 서술자보다는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위가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술자의 목소리는 ⑬에서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독자들은 서술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가 마지막 ‘-헛더라’하는 순간 이 장면이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종결어미의 빈도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밀접

33) 권영민, 앞의 논문(1975), 34쪽.

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 간에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㉔의 경우에는 인물의 대사가 끝난 다음에 종결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술자는 ‘글오디’를 사용하여 인물의 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지만, 인물의 말이 끝났을 때는 아무런 표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문장처럼 쓴다면 인용이 끝난 다음에는 ‘-하더라’ 등의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장면 뿐 아니라 대체로 <사씨남정기>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이 이어지는 대목의 서술에서 인물의 대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물 간 대화가 인용된 다음에 서술어가 생략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크게 약화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종결어미가 수반되는 서술어를 통해 서술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우리말은 종결어미에서 화자의 진술 태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소설에서 종결어미가 생략되면 화자인 서술자의 진술 태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서술자의 존재를 감추게 된다. 반대로 종결어미를 자주 사용하면 그만큼 서술자의 존재가 강하게 드러난다. 등장인물 간 대화를 매개하는 장면에서 서술자가 종결어미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인물간의 대화를 서술자의 개입 없이 제시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결어미가 생략되고 서술자의 목소리가 약화되면서 등장인물 간의 대화는 현재화 된다. ‘-더라’나 ‘-니라’, ‘-다’는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34)</sup> 이 때문에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독자는 서술된 내용이 이미 지난 사건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인물간 대화가 이어지는 대목에서 종결어미가 생략되면 독자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끼게 된다. 인물의 발화는 주어와 종결어미에서 등장인물 상호간의 관계를 반영한 높임법을 따르기 때문에 서술자의 목소리와는 구분된다. 그리고 대화에서는 각 등장인물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현재의 상황으로 ‘재현(representation)’된다. 종결어미가 생략되면서 서술자를 등장인물 뒤에 자신을 감추게 되고 동시에 이야기는 현재화되는 것이다.<sup>35)</sup> 따라서 종결어미가 생략됨

34) 고영근은 중세국어에서 ‘-니라’나 ‘-다’ 등의 부정형(不定形)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과거시제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고영근, 앞의 책(1998), 74~76쪽.

35) 신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다’가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서술자의 설명적 서술이 진행되는 지점에서는 ‘-더라’나 ‘-이랴’가 종결어미로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생략되었던 종결어미를 넣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으로써 인물의 대화는 더욱 현실감 있게 서술될 수 있다. 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술되는 대목에서 마치 인물의 대화를 직접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⑭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묘희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도 서술자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등장인물인 묘희의 목소리로 들리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사-⑩ 날이 이따 저따러 나조 안기 크게 일고 ㉑상령의 고슬이 굿치고 낙포의 구름이 묘연흐지라 드디어 어스의 도라와 종즈를 분부흐야 ㉒주과를 장만흐라 너일 제흐야 나의 망극한 회포를 펴리라' 흐고 등하의서 제문을 지으려 흐되 심식 울울흐야 짓지 못흐더니 종지 임의 즈미 코소리 우레 굿흐니 전전흐중 그 소리에 더욱 심난흐야 제문 흐 줄을 날우지 못흐고 머음을 정치 못흐즈음의 문득 드르니 맞기 고탄소리 진동흐거늘 크게 놀나 창을 열고 보니 당스 십여 인이 각각 도창을 가지고 크게 소리흐야 같오되 “뉴연슈는 닷지 말나” 흐거늘 한림이 뒤창을 박치고 썩여 너다르니 종즈는 미쳐 아지 못흐는지라 바로 죽음을 조즈 나가 동셔를 분변치 못흐니 그 형상이 집 일흔 기와 금물 버슨 고기 갖더라(권3, 10~11면).

유연수가 회사정 기둥에 적힌 사씨의 글을 읽고 사씨가 죽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사씨를 위한 제문을 짓던 중에 동창이 보낸 도적들의 습격으로 급히 도망치는 장면이다. 위 ⑩에서는 앞의 예문과는 달리 인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적어서 분량은 원고지 약 2매 정도이다. 위 예문은 인물의 대화 장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의 목소리로만 서술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위에서도 서술자의 목소리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등장인물의 대화가 거의 없음에도 서술자의 목소리가 그리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 대목이 유연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밑줄 부분의 문장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㉑에서 상령의 고슬이 그치고 낙포의 구름이 묘연하다고 서술한 것은 풍경에 대한 서술이라기 보다는 죽은 사씨를 생각하는 유연수의 심정 서술에 가깝다. 사실 사씨는 묘희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여기서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이 아닌 유연수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고슬이 그치고 구름이 묘연하다’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㉒은 “나의 망극한 회포”라고 한 것

으로 보아 유연수의 목소리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분부하야” 다음에는 ‘가로되’ 등의 인용투어가 들어가서 등장인물의 말과 서술자의 말이 구분되었던 앞서의 예문과 달리 여기에는 인용투어가 없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닌 듯하다. 유한림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유연수의 말과 따로 구별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득 드러니”, “창을 열고 보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면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아닌 유연수의 목소리로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사씨남정기>에서는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대목에서는 종결어미가 자주 나타나고 서술자가 구체적으로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종결어미의 사용이 적다. 그리고 종결어미의 빈도가 낮은 대목에서는 인물의 대화가 이어지거나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상황이 서술되는 등 서술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써 종결어미의 빈도가 서술자의 중개성<sup>36</sup>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과 같은 서사물에서 서술자는 이야기(서사)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이다. 이때 서술자의 중개성이 강한 경우 독자는 이야기를 인격적인 서술자로부터 전해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반대로 서술자의 중개성이 약한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서사를 체험하거나 마치 연극의 관객처럼 관찰자로서 지켜보게 된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종결어미의 사용이 평균 1면당 1회를 넘지 않고 있으며, 서술 상으로도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장면보다는 등장인물의 대화 장면이 많다. 또 대화가 많지 않으면서 지문이 비교적 긴 경우, 서술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품 전체에 걸쳐 서사에 개입하는 서술자의 중개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사씨남정기>가 선행연구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36) ‘중개성’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뜻하는 말로 스타넬의 ‘mediacy’를 번역한 것이다. 스타넬/김정신(역), 『소설의 이론』(탑출판사, 1994).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술자’에 의해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어미의 종결형에는 ‘-다’, ‘-니라’, ‘-더라’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분명한 의미차이가 있었으며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서술자의 위치도 달라졌다. 또한 종결어미의 빈도에 따라 서술자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미의 종결형에 대한 고찰에서 나타나듯,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위치와 목소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종결어미의 빈도가 일정치 않고 종결형의 의미가 각기 다른 것에서 나타나듯, 서술자는 서두 부분에서는 전지적인 서술자로서 서술하다가 서사가 진행되면서 관찰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서술하고 있었다. 다양한 서술방식이 공존하면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언급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는 대목보다는 사건을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 서술된 대목의 비중이 더 높다. 대체로 서술자는 관찰자로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으며, 서술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라’가 ‘-니라’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를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등장인물 뒤에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서술자의 목소리가 생략되면서 서술은 현재상황으로 ‘재현’(representation)되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종결형태의 의미차이나 서술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면서 ‘-더라’를 사용할 때 서술자의 위치는 당연히 전지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더라’ 자체의 의미에 대한 고찰없이 고전소설을 근대소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서사물로 보려는 경향에서 비롯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고전소설을 시기적으로 신소설보다 앞서 존재했던 소설로 보지 않고 소설로서 함량미달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바에서 <사씨남정기>에서 서술자의 중개성은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전지적 서술의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고전소설을 신소설 이후의 소설과 대등하게 고찰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 물론 이런 사실이 소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전지적 서술이 제한적 서술보다 우월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사씨남정기>에 다양한 서술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작품이 설화의 단계를 벗어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서술방식에 대한 고찰은 기록문학으로서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소설사의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우리 소설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설이 등장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새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전대의 소설을 의식적으로 배격했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이러한 탓에 이후의 연구자들도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했으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아울러 우리 소설사의 전통을 이해할 기회는 차단되었다. 그러므로 고전소설의 종결어미와 서술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은 단절된 소설사를 이어주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남정기>. 3권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귀 K4-6789).
- <조야침제>.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 고영근,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 서울: 탑출판사, 1998.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서울: 소명출판, 2000.
- 권영민, 「개화기 소설의 문체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5.
- 김동인, 「한국근대소설고」. 『동인전집(8)』. 서울: 홍자출판사, 1964, 584~606쪽.
- 김태준(편), 『을병연행록』. 서울: 명지대 국문과 국학자료 간행위원회, 1983.
- 박갑수,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문체」. 『고전문학의 문체와 표현』. 서울: 집문당, 2005, 241~257쪽.
- 부세, 「원문 비평 방법론에 관한 소고(小考)」. 『동방학지』 95, 1997, 143~172쪽.
- 신현숙, 「A Subjectification Maker in Korean: -tela(-더라)」. 『언어』 15, 한국언어학회, 1990, 365~388쪽.
-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서울: 반도출판사, 1991.
- 이내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19, 2003, 369~397쪽.
- 이병근, 「유길준의 어문사용과 『서유견문』」. 『진단학보』 89, 2000, 309~326쪽.
- 이지영(李智瑛), 「<사씨남정기> 한문본 한글본의 비교 분석: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을 중

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7, 2004, 51~72쪽.

이지영(李知英), 「선어말미 ‘더’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홍식, 「한국어 어미 ‘-더라’ 소설의 발달». 『텍스트언어학』 14, 2003, 167~190쪽.

임홍빈, 「국어의 ‘절대문(絶對文)’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1983, 97~136쪽.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최동주, 「국어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최동주,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언어』 27, 한국언어학회, 2002, 507~534쪽.

스탄젤/김정신(역), 『소설의 이론』. 서울: 탑출판사, 1994.

### 국 문 요약

이 논문은 <사씨남정기>의 종결형태와 서술방식의 관련양상을 고찰하였다. <사씨남정기> 종결형에는 ‘-더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이라’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이라’가 많고 ‘-더라’가 적은 관소리계 소설이나 신소설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또한 종결형태에 따라 서술자의 시점과 위치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를 사용할 경우 서술자는 초월적인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었으며, ‘-니라’의 경우에는 전지적 서술에서 서술하였다. ‘-더라’는 서술자가 서술대상과 거리를 두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서술할 때 나타났다. 각 종결형태와 서술자의 위치의 상관관계는 <을병연행록>이나 <조야침재>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허구적 서사인 <사씨남정기>의 서술자가 ‘-더라’를 사용한 것은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사씨남정기>의 종결어미의 빈도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설명할 때는 종결어미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데 반해 인물간의 대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때는 종결어미의 빈도가 낮았는데, 종결어미의 빈도에 따라 서술자의 목소리가 강조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흔히 말하듯이, 고전소설이 ‘-더라’체와 전지적 시점으로부터 서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투고일 : 2007. 4. 6.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종결어미(Sentence-terminating endings), 종결형(Sentence endings), 사씨남정기(*Sassi-namjeonggi*), 더리(-tela), 서술자(Narrator), 서술방식(Narration), 서술시점(Point of view).